

Tenor John Noh Recital

Noble, Simplicity & Quiet, Grandeur

W 워너 클래식 앨범 발매 기념

테너 존노 리사이틀

Tenor John Noh Recital

<Noble, Simplicity & Quiet, Grandeur>

2021년 9월 19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PM Sunday, September 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존노, 테너	John Noh, Tenor
이병욱, 지휘자	Christopher Lee, Conductor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김주택, 바리톤 *스페셜 게스트	Julian Kim, Baritone



CREDIA

안녕하세요. 테너 존노입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뜻깊은 자리에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리사이틀은 바로크음악부터 현대 가곡에 이르는 저의 첫번째 클래식 앨범 <NSQG>에 있는 모든 노래들과 다양한 테너의 노래들로 채워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음악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무대를 통해 다양한 사랑을 담은 노래들을 어떻게 여러분께 잘 들려드릴 수 있는 많은 고민을 하였고,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를 통해 행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잘 전달받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가진다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이 무대는 저로 인해, 저를 위해, 마련한 무대가 아닌 제 음악을 사랑하는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앨범부터 공연까지 함께 해 주신 디토 오케스트라와 늘 멋지게 이끌어 주시는 이병욱 지휘자님, 존경하는 바리톤 김주택님,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믿음으로 동행해주시는 크레디아와 워너클래식, 마지막으로 늘 많은 사랑과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사랑 가득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클래식 앨범 발매와 더불어 오늘의 첫 리사이틀을 꿈의 무대에서 갖게 되어 온 마음 다해 다시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테너 존노 올림

P A R T 1

글루크 독일
1714-1787
C.W. Gluck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서곡
Overture from <Orfeo and Euridice>

헨델 독일
1685-1759
G. F. Händel

오라토리오 <예프타> HWV 70 중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Waft her, angels, through the skies' from Oratorio <Jephtha>, HWV 70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1756-1791
W.A. Mozart

오페라 <마술피리> K. 620 중
타미노의 아리아 '마술피리의 힘은 대단하지 않은가?'
'Wie stark ist nicht dein Zauberton' from <Die Zauberflöte> K. 620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1828
F.P. Schubert

<엘렌의 세 번째 노래> D. 839, Op. 52, No. 6 '아베마리아'
'Ave Maria' <Ellns Gesang III> D. 839, Op. 52, No. 6

도니제티 이탈리아
1797-1848
G. Donizetti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벨코레의 아리아 '그 옛날 파리스처럼' (바리톤: 김주택)
'Come Paride vezzoso', Belcore's aria from <L'elisir d'amore>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네모리노와 벨코레의 이중창
'20스쿠디(금화20냥)' (테너: 존노, 바리톤: 김주택)
'Venti scudi', Duet of Nemorino & Belcore from <L'elisir d'amore>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네모리노의 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Nemorino's aria from <L'elisir d'amore>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P A R T 2

비제 프랑스
1838-1875

G. Bizet

오페라 <카르멘> 중 서곡

Overture from <Carmen>

오페라 <카르멘> 중 돈 호세의 아리아

‘그대가 던져 준 그 꽃은(꽃의 노래)’

‘La fleur que tu m’avais jetée’ (Flower Song), Don Jose’s aria from opera <Carmen>

토스티 이탈리아
1846-1916

F.P. Tosti

작은 입술

A Vucchella

이상

Ideale

슈트라우스 독일
1864-1949

R. Strauss

마지막 잎새에 의한 여덟 개의 가곡 Op. 10, 제 1곡 ‘헌정’

8 Gedichte Aus ‘Letzte Blätter’, Op. 10, TrV 141, No. 1 ‘Zueignung’

네 개의 마지막 노래 Op. 27, 제 3곡 ‘은밀한 초대’

4 Lieder, Op. 27. TrV 170, No.3 ‘Heimliche Aufforderung’

다섯 개의 노래 Op. 32, 제 1곡 ‘내 안에 사랑을 담아’

5 Lieder, Op. 32. TrV 174, No.1 ‘Ich trage meine Minne’

네 개의 마지막 노래 Op. 27, 제 4곡 ‘내일’

4 Lieder, Op. 27. TrV 170, No. 4 ‘Morgen’

신귀복 한국
1937-

Kui-Bok Sin

작사: 심봉석 Bong Seok Sim 1941-

얼굴

The Face

김효근 한국
1960-

Hyo Gun Kym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What Though Life Conspire to Cheat You

‘새날의 여명’처럼 빛나는 찬란한 미성

오페라의 나라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도 좋은 테너를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나폴리 태생의 엔리코 카루소에서부터 시칠리아의 주세페 디 스테파노, 모데나에서 태어난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대표하고,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던 테너들의 탄생에는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몇 세대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그 정도로 테너는 이 세상에서 귀하다 귀한 존재다. 사람들은 테너에게서 이율배반적인 ‘절대적 아름다움’을 요구한다. 다투처럼 남성적인 힘이 넘쳐흐르기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아도니스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서정미 또한 테너들의 필수 덕목이다. ‘천재 테너’ 존노의 탄생은 그런 점에서 반가운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는 너무도 맑고 청아한 미성을 지녔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섬세하고 우아하게 꽃피워내는 깊은 예술성을 겸비했다. 단순히 직선적으로 쪽 뻗어만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고요히 맺힌 눈물처럼 아련한 감수성으로 가득 찬 기품 있는 서정미가 듣는 이의 마음을 깊게 울린다.

이번 리사이틀의 프로그램은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우리 가곡을 망라하고 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와 모차르트, 도니제티의 오페라가 중심이 되는 1부는 존노가 지닌 풍부한 감수성과 드라마틱한 호소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부는 아카데미하면서도 시적인 가곡들로 가득 차 있다. 파올로 토스티의 이탈리아 가곡은 지중해의 푸르른 서정미가 인상적이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독일 가곡들은 관조적이며 회상적인 문학성을 지녔다. 제각기 세기말의 이탈리아와 독일을 대표하는 이들의 음악을 존노의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미성으로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마지막으로, 아련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 가곡 두 곡도 선물처럼 준비되어 있다.

존노의 미성은 찬연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토스티의 ‘이상’ 속 한 구절인 ‘새날의 여명(Una novell'aurora)’을 연상케 한다. 아름답고 찬란하면서도 품위 있고 고요한 감성의 목소리, 이 젊은 테너의 귀중한 탄생을 모든 이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본다.

글루크

C.W. Gluck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서곡

Overture from <Orfeo and Euridice>

글루크는 오페라의 개혁가로 유명했다. 유달리 장식음이 많고 과장된 서사와 신파조의 내용으로 일관했던 이전 시대 바로크 오페라에서 탈피해, 보다 동시대적이고 극적이며 응축된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의 대표작은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인데, 그리스 신화 속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극과 긴밀하게 조응하는 유기적인 음악으로 아름답게 재탄생시켰다. 서곡을 본편과 조성적으로 연결시킨 것도 글루크의 공로인데, 이때부터 서곡은 단순히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기 역할에서 탈피해 전체 작품의 테마와 전개방향을 암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명징한 금관악기의 울림과 함께 시작되는 기품 있고 우아하며 장쾌한 관현악 서곡이다.

헨델
G. F. Händel

오라토리오 <예프타> HWV 70 중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Waft her, angels, through the skies’ from Oratorio <Jephtha>, HWV 70

헨델이 남긴 최후의 오라토리오 <예프타>는 구약성서 사사기 제11장에 등장하는 길르앗의 영웅 예프타(입다)의 장대한 투쟁을 다룬 작품이다. 그는 유린당하고 있는 고향 땅을 구하고자 영웅적인 항전을 벌이다 자신의 딸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할 상황에 이른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헨델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건강악화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화려하고 장대한 <메시아>에 비해 좀 더 고뇌하는 인간적 갈등과 슬픔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다. 아리아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는 제물로 바쳐질 딸 이피스의 영혼을 천사들에게 의탁하면서 천상에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바라는 애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투영된 노래이다.

Waft her, angels through the skies Waft her, angels through the skies
Far above yon azure plain, far above yon azure plain
Angels, waft her through the skies,
waft her through the skies Far above yon azure plain, far above you azure plain
Glorious there like you to rise, there like you forever reign
Glorious there like you to rise,
there like you forever reign Forever reign, there like you forever reign
Waft her, angels through the skies Waft her, angels through the skies
Far beyond yon azure plain, far beyond yon azure plain
Angels, waft her through the skies, waft her through the skies Far above yon azure plain,
far above yon azure plain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저 위 푸른 초원으로, 저 위 푸른 초원으로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저 위의 푸른 초원으로, 저 위의 푸른 초원으로
당신처럼 영광스러운 곳에서 일어서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다스려라
당신처럼 영광스러운 곳에서 일어서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다스려라
영원토록 다스려라, 당신처럼 영광스러운 곳에서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더 먼 푸른 초원으로, 더 먼 푸른 초원으로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 저 위 푸른 초원으로,
저 위 푸른 초원으로

모차르트
W.A. Mozart

오페라 <마술피리> K. 620 중
타미노의 아리아 ‘마술피리의 힘은 대단하지 않은가?’
‘Wie stark ist nicht dein Zauberton’ from <Die Zauberflöte> K. 620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어둠과 미몽(밤의 여왕)의 세상에서 벗어나 빛과 계몽(자라스트로)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젊은이들의 깨달음과 각성의 여정을 그린 오페라다. 타미노 왕자는 파미나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면서 마술피리를 받아들게 되는데, 이를 연주하면 사나운 들짐승도 인간의 말을 알아 들을 고 위협을 멈춘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 속의 오르페오가 아름다운 리라 연주로 하데스가 지배하는 지옥의 어둠을 이겨내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음악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공포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많은 작곡가들이 사랑하는 테마이기도 했다. 모차르트 특유의 맑고 아기자기한 음률이 테너의 청아한 미성과 함께 하늘을 타고 오르며 울려 퍼지는 이 아리아는 독일 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첫손에 꼽힌다.

Wie stark ist nicht dein Zauberton Weil, holde Flöte, holde Flöte Durch dein Spielen
Selbst wilde Tiere Freude fühlen

너의 마술은 참으로 강력하도다 감미로운 피리여
감미로운 피리여

Wie stark ist nicht dein Zauberton Weil, holde Flöte durch dein Spielen
 Holde Flöte, durch dein Spielen Selbst wilde tiefe Freude
 Doch nur Pamina, nur Pamina bleibt davon Nur Pamina bleibt davon
 Pamina
 Pamina höre, höre mich Umsonst, umsonst
 Wo?
 Wo? wo? ach wo, wo find' ich dich?
 Ha! das ist Papagenos Ton Vielleicht sah er Pamina schon Vielleicht eilt sie mit ihm zu mir
 Vielleicht, vielleicht führt mich der Ton zu ihr Führt mich der Ton zu ihr
 Führt mich der Ton, der Ton zu ihr

너를 볼면 야생동물들도 기쁨을 느끼는구나 너의 마술은 참으로 강력하도다
 감미로운 피리여, 너를 물어보자
 감미로운 피리여, 너를 볼면 야생동물들도 기쁨을 느끼는데
 하지만, 파미나만 파미나만 이곳에 없구나
 파미나, 파미나, 들어주소 내 소리를 들어주소 허무하다, 허무하구나
 어디서?
 아, 어디서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파파게노의 소리구나!
 어쩌면 벌써 파미나를 만났는지도 어쩌면 그녀와 함께 서두르고 있는지도
 어쩌면, 어쩌면 저 소리가 나를 그녀에게 이끌어 줄지도 나를 그녀에게 이끌어 줄 지도
 저 소리가, 저 소리가 나를 그녀에게 이끌어 줄지도

슈베르트

F.P. Schubert

<엘렌의 세 번째 노래> D. 839, Op. 52, No. 6 ‘아베마리아’

‘Ave Maria’ <Ellns Gesang III> D. 839, Op. 52, No. 6

스코틀랜드의 대문호 월터 스코트의 서사시 <호수의 여인>은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가령 로시니는 같은 제목의 오페라를 작곡해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청년 슈베르트 또한 스코트의 시를 읽고 크게 감동하여, 독일어로 번역된 가사에 맞춰 7곡으로 이뤄진 연작가곡 ‘호수의 여인’을 작곡하니 그가 28세 되던 해였다. ‘아베마리아’는 가곡집의 여섯 번째에 등장하는 노래로, 스코트의 원작에서 처절한 내전의 와중에 아버지 더글라스와 함께 추방당한 엘렌이 호숫가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흔히 카치니, 구노의 아베마리아와 함께 ‘3대 아베마리아’로 손꼽히는 명곡으로, 고요하면서도 명상적인 분위기가 깊은 감동을 준다.

Ave, Ave, Dominus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Ventris tui, Jesus
 Ave Maria!

은총이 가득한 성모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은총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은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기뻐하소서, 성모 마리아여

도니제티

G. Donizetti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벨코레의 아리아 ‘그 옛날 파리스처럼’ (바리톤: 김주백)

‘Come Paride vezzoso’, Belcore’s aria from <L’elisir d’amore>

<사랑의 묘약>은 19세기 초중반 이탈리아를 풍미한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 가에타노 도니제티가 남긴 희극 오페라의 최고봉이다. 작품의 배경은 이탈리아의 어느 시골 마을인데, 다재다능하고 지적인 미모의 여 주인공 아디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어리숙한 시골청년 네모리노(테너)와 엉뚱한 마초남 벨코레 하사관(바리톤)의 삼각관계가 주된 내용이다. 어느 날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마을에 나타난 벨코레는 아디나에게 한 눈에 반해 그녀에게 당장 오늘 결혼하자며 청혼을 보낸다. 그리스 신화 속의 파리스가 최고의 미녀 아프로디테를 선택했던 것처럼 자신도 아디나를 한 눈에 알아봤다는 코믹한 내용의 바리톤 아리아로, 영

퐁하면서도 박력 있는 남성미 만점의 노래.

come paride vezzoso porse il pomo alla piu bella,
mia diletta villanella io ti porgo questi fior.
ma di lui glorioso, piu di lui felice io sono,
poiche in premio del mio dono ne riporto il tuo bel cor.
veggo chiaro in quel visino ch'io fo breccia nel tuo petto.
non e cosa sorprendente;
son galante, son sergente; non v'ha bella che resista
alla vista d'un chmiero; cede a marte iddio guerriero, fin la madre dell'amor

파리스가 미의 여신에게 황금사과를 바친 옛이야기처럼
사랑하는 그대에게 나도 이 꽃을 바칩니다.
이 꽃을 받아 준다면 더 영광스럽고 행복할 수 없을 것이요
내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그대의 고운 마음을 품어 주리다.
그대의 마음이 나에게 풀린 것이 분명히 보이네요
그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
이 용감하고 멋진 군인에게 반하지 않은 여인은 없었소
사랑과 미의 여신도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 굴복했다오

도니제티
G. Donizetti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네모리노와 벨코레의 이중창
'20스쿠디(금화20냥)' (테너: 존노, 바리톤: 김주택)
'Venti scudi', Duet of Nemorino & Belcore from <L'elisir d'amore>

어리숙한 청년 네모리노는 떠돌이 약장수에 속아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을 구입했지만 약효가 발휘되기는커녕, 오히려 아디나는 그를 저버리고 벨코레와 결혼할 태세다. 마음이 급해진 네모리노가 다시 한 번 약장수를 찾아가 묘약을 구해보려 하지만 돈이 모자란다. 결국 네모리노는 벨코레를 찾아와 입대를 약속하며 미리 돈을 달라고 조르고, 벨코레는 연적을 제거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맑고 청아한 음색을 지녔지만 바보같이 순박한 테너와 우렁차고 힘찬 음색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허당끼가 가득한 바리톤의 코믹한 2중창으로, 서로 '벤티 스쿠디'(20 스쿠디)라는 외침을 주고 받으며 노래하는 유쾌한 듀엣.

(Nemorino) Venti Scudi!	(네모리노) 금화 20냥이라고?
(Belcore) E ben Sonati.	(벨코레) 현찰로 주지
(Nemorino) Quando? Adesso?	(네모리노) 언제? 지금요?
(Belcore) Sul momento.	(벨코레) 즉시 주지
(Nemorino) Che far deggio?	(네모리노) 어떻게 해야하나?
(Belcore) E coi contanti, gloria e onore al reggimento.	(벨코레) 군에 입대하면 돈과 영광과 명예를 함께 얻는거야
(Nemorino) Ah! non e l'ambizione, che seduce questo cor.	(네모리노) 아, 내 마음을 이끄는 건 야망이 아네요.
(Belcore) Se e l'amore, in guarnigione non ti puo mancar l'amor.	(벨코레) 원하는게 사랑이라면 군에 가서도 사랑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지.
(Nemorino) Ah, no. Ah no. Ah! Ai perigli della guerra io so ben che esposto sono: che doman la patria terra, zio, congiunti, ahime! abbandono. Ma so pur che, fuor di questa, altra strada a me non resta per poter del cor d'Adina un sol giorno trionfar.	(네모리노) 아네요. 그런 게 아네요. 아! 전쟁터의 위험이 어떤건지 나도 잘 알아요. 내일이면 고향과 삼촌 친척들 곁을, 아아 떠나야 한다는걸. 하지만 이것 말고는 내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난 알아 단 하루라도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Belcore) Del tamburo al suon vivace, tra le file e le bandiere, aggrirsi amor si piace con le vispe vivandiere:	(벨코레) 활기찬 북소리에 맞춰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 사랑의 신이 생기 넘치는 아가씨들과 함께 따라다니지
(Nemorino) Ah! chi un giorno ottiene Adina.	(네모리노) 아, 하루만이라도 아디나를 얻을 수 있다면.
(Belcore) sempre lieto, sempre gaio ha di belle un centinaio. Di costanza non s'annoia, non si perde a sospirar. Credi a me: la vera gioia accompagna il militar.	(벨코레) 늘 행복하게 늘 즐겁게 수많은 미인들에게 둘러싸여 계속 지루할 틈도 없고 한숨 쉬며 갈팡질팡하지도 않지.
(Nemorino) fin la vita fin la vita può lasciar.	(네모리노) 목숨이라도 걸 수 있겠네
(Belcore) Credi a me: la vera gioia Credi a me: la vera gioia accompagna il militar.	(벨코레) 내 말을 믿게. 내 말을 믿게. 군대에 따라오는 진정한 기쁨이란 게 있단네.
(Nemorino) Ah! chi un giorno ottiene Adina.	(네모리노) 아, 하루만이라도 아디나를 얻을 수 있다면.
(Belcore) Credi a me: la vera gioia Credi a me: la vera gioia accompagna il militar.	(벨코레) 내 말을 믿게. 내 말을 믿게. 군대에 따라오는 진정한 기쁨이란 게 있단네.
(Nemorino) Ah: fin la vita fin la vita può lasciar.	(네모리노) 아, 목숨이라도 걸 수 있겠네
(Belcore) il militar.	(벨코레) 군대를 (따라오게)

(Nemorino) Si, può, Sì, può lasciar.	(네모리노) 그래. 버릴 수 있겠네. 버릴 수 있겠네
(Nemorino) Venti scudi!	(네모리노) 금화 20냥이라구!
(Belcore) Su due piedi.	(벨코레) 당장 주지
(Nemorino) Ebben vada. Li prepara.	(네모리노) 그럼 갑시다. 돈 주세요.
(Belcore) Ma la carta che tu vedi pria di tutto dèi segnar. <u>Qua</u> una croce.	(벨코레) 그럼 우선 여기 보이는 이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네.
(Nemorino) Dulcamara volo tosto a ricercar.	여기에 십자 표시를 하게.
(Belcore) <u>Qua</u> la mano, giovinotto, dell'acquisto mi consolo:	(네모리노) 빨리 돌아가라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지.
in complesso, sopra e sotto tu mi sembri un buon figliuolo,	(벨코레) 자 젊은이. 거래가 성사되어 기분이 좋군.
sarai presto caporale, se me prendi ad esemplar. Sì!	이제 전체적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아주 멋있어 보이네
(Ho ingaggiato il mio rivale: anche questa è da contar.)	나를 본보기로 삼으면 자네도 곧 장교가 될거야. 암!
(Nemorino) Ah! non sai chi m'ha ridotto a tal passo, a tal partito:	(내 라이벌을 입대시켰어,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 해)
tu non sai qual cor sta sotto a sì semplice vestito!	야. 당신은 모르겠지. 누가 날 이런 단계 이런 곳까지
	이르게 만들었는지.
	이 남루한 복장 밑에 어떤 마음이 감춰져 있는지 당신은 몰라
(Belcore) Sempre lieto, sempre gaio, non si perde a sospirar.	(벨코레) 늘 즐겁고 늘 유쾌하니 한숨 쉬며 헤매지 않아도 돼
(Nemorino) <u>Quel</u> che a me tal somma vale non potresti immaginar.	(네모리노) 이 돈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거야.
(Belcore) Ha di belle un centinaio. non si perde a sospirar.	(벨코레) 미녀들은 수없이 많아. 한숨지으며 헤매지 않아도 돼
(Nemorino) Ah! non v'ha tesoro eguale, se riesce a farmi amar.	(네모리노) 아,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만 된다면 그에 비할 보물은 없지
(Belcore) a sospirar. a sospirar.	(벨코레) 한숨 사라지네. 한숨 사라지네.
(Nemorino) a farmi amar. a farmi amar.	(네모리노) 날 사랑하게 된다면, 날 사랑하게 된다면.

도니제티
G. Donizetti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네모리노의 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Nemorino's aria from <L'elisir d'amore>

오페라의 2막에 등장하는 최고의 로망스. 아디나는 마을을 수소문해 약장수 돌카마라를 찾아내고 그에게서 네모리노의 그간 노력들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묘약'을 구입한 일, 돈이 궁해 어쩔 수 없이 입대를 약속한 일 등등. 아디나는 네모리노의 진심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네모리노가 저 멀리서 그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감격해한다. 느릿한 서주가 흐르고, 유려하고 서정적인 선율미로 가득 찬 아리아가 시작된다. 오페라는 코믹한 희극이지만 이 아리아만큼은 진심을 담아 부르는 처연한 로망스다. 예로부터 서정적인 목소리의 리릭 테너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불후의 명곡으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벨칸토 아리아의 최고봉.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o
Quelle festose giovani nvidiar sembrò
Che più cercando io vo?
Che più cercando io vo?
M'ama, sì, m'ama lo vedo, lo vedo.
Un solo istante il palpiti Del suo bel cor sentir I miei sospir confondere
Per poco a' suoi sospir
I palpiti, i palpiti sentir
Confondere i miei coi suoi sospir
Cielo
Si può morir
Di più non chiedo, non chiedo
Ah Cielo

남 몰래 흐리는 눈물이 그녀의 두 눈에서 흐르네
저 즐거워하는 젊은 아가씨들은 질투하는 듯해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녀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요, 나는 알아요
한 순간 심장의 두근거림을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느껴요 나의 한숨이 뒤섞이죠
그녀의 한숨과 함께
두근거림, 그녀 심장의 두근거림을 난 느꼈고
나의 한숨은 그녀의 한숨과 하나가 되죠
하늘이시여
그래요,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아, 하늘이시여

Si può sì, può morir Di più non chiedo Non chiedo
Si può morir Ah si morir D'amor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그래요, 난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비제

G. Bizet

오페라 <카르멘> 중 서곡

Overture from <Carmen>

<카르멘>은 조르주 비제가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프랑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비제는 프랑스 오페라 특유의 감각적인 관능성과 낭송적인 문학성 위에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을 연상케 하는 타오르는 생명력과 놀라운 선율미, 살아 움직이는 화려한 관현악의 아름다움이 함께 살아 숨쉬는 대작을 만들었다. <카르멘> 서곡은 오페라의 주요 선율을 집대성한 곡으로, 세비야의 자유분방한 집시여인 카르멘의 테마, 그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는 하사관 돈 호세의 어두운 정열, 투우사 에스카미요의 뜨겁고 호방한 행진곡 등이 한데 엉켜 연주되는 관현악의 일대 명곡이다.

비제

G. Bizet

오페라 <카르멘> 중 돈 호세의 아리아

‘그대가 던져 준 그 꽃은 (꽃의 노래)’

‘La fleur que tu m’avais jetée’ (Flower Song), Don Jose's aria from opera <Carmen>

오페라의 2막에 등장하는 돈 호세의 아리아. 카르멘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놓아준 헌병대 하사관 돈 호세는 그 별로 영창에 갇혀 있다 100여일 만에 풀려난다. 성 밖의 술집에서 두 사람은 재회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집시 여인 카르멘은 돈 호세를 향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장에 탈영하라고 다그친다. 그녀의 당돌하고 거친 태도에 마음이 상한 돈 호세는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고자 몇 달 전 카르멘이 건네준 붉은 꽃을 품에서 다시 꺼내 들며 애타는 사랑을 절절하게 노래한다. 붙잡힐 듯 붙잡히지 않는 사랑을 향한 한 남자의 안타까운 절규로 가득 찬 이 노래는 19세기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테너 아리아이기도 하다.

La fleur que tu m'avais jetée Dans ma prison, m'était restée Flétrie et sèche, cette fleur
Gardait toujours sa douce odeur
Et pendant des heures entières
Sur mes yeux, fermant mes paupières De cette odeur je m'enivrais
Et dans la nuit je te voyais
Je me prenais à te maudire, À te détester, à me dire:
"Pour quoi faut-il que le destin L'ait mise là sur mon chemin?"
Puis je m'accusais de blasphème Et je ne sentais rien moi-même
Je ne sentais qu'un seul désir
Un seul désir, un seul espoir:
Te revoir, ô Carmen, oui, Te revoir!
Car tu n'avais eu qu'à paraître Qu'à jeter un regard sur moi Pour t'emparais de tout mon

당신이 내게 던져 준 그 꽃은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했었다고 시들고 말라버렸지만,
이 꽃이 달콤한 향기만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오
모든 시간 동안
나의 두 눈 위에 있는, 눈꺼풀을 덮고 나는 이 향기에 취했다오
그리고 밤에는 당신을 그리보았다오!
나는 당신을 증오하길 시작했는데 당신을 미워했고, 나에게 물어 보았지:
"왜 놓여진 운명은 당신을 나의 길 위에 가져다 놓았는가?" 하고 말ियो
그후에 나는 나 자신을 모욕적인 말로 비난했다오
그리고 나는 나조차도 느끼지 못했다오
단지 하나의 욕망만 느꼈을 뿐이랴오 단 하나의 욕망, 단 하나의 희망: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오 카르멘, 그래요, 당신을 다시 본다는 그 욕망만이!
당신은 내 앞에만 나타나야 하기에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 위해

être Ô ma Carmen!
Et j'étais une chose à toi Carmen, je t'aime!

나의 모든 존재로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 오 나의 카르멘!
나는 한낱 당신의 물건일 뿐이었소 카르멘, 당신을 사랑하오!

토스티

F.P. Tosti

작은 입술

A Vucchella

나폴리 태생으로 후일 영국을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는 나폴리 칸초네를 예술가곡의 영역으로 이끈 작곡가로 손꼽힌다. 나폴리 민요 특유의 자연스럽고 유려한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기품 있는 예술성을 더해 수많은 예술가곡의 명곡들을 탄생시켰다. ‘작은 입술’은 토스티의 대표곡으로, 가사는 이탈리아의 대문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가 썼다. 단눈치오는 나폴리 태생이 아니지만 나폴리타나 칸초네의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지역 방언으로 된 시를 썼고, 아름다운 각운으로 이어지는 가사와 토스티의 소박하면서도 양증맞은 선율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지금은 사랑스런 세레나데의 대명사가 되었다. 엔리코 카루소부터 루치아노 파바로티까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 테너들이 유독 즐겨 불렀던 애창곡으로도 유명하다.

Si comm'è nu sciorillo
tu tiene na vucchella
ne poco pocorillo appassuiatella.
Meh, dammillo,
è comm'á na rusella
damillo nu vasillo,
dammillo, Cannetella!
Dammillo e pigliatillo,
nu vaso piccerillo
comm'á chesta vucchella,
che pare na rusella nu poco
pocorillo appassuiatella.
Si tu tiene na vucchella ne poco
pocorillo appassuiatella.

자그마한 꽃이어
어여쁜 네 입술 자그마한 꽃과 같네
어여쁜 네 입술
아 내게 주오 아 내게 주오
장미처럼 어여쁜 네 입술
내가 주오 네에게 칸네틀라
분홍빛 장비꽃도
네 얼굴 따르지 못해
장미보다 어여쁜
사랑스러운 입술
내게 주오 그대여
자그마한 꽃과 같네
어여쁜 네 입술
아 어여쁜 네 입술
자그마한 꽃과 같이 어여쁜 네 입술

토스티

F.P. Tosti

이상

Ideale

‘작은 입술’이 칸초네 풍의 노래라면 ‘이상’(이데알레)은 마치 독일 리트를 연상케 하는 기품 있는 가곡이다. 토스티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향취를 자아내는 곡으로도 유명한데, 나폴리 칸초네나 이탈리아 가곡 특유의 밝은 지중해 정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성악가들도 즐겨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이다. 카르멜로 에리코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되었으며, 연인을 향한 지극히 순수하고 플라토닉한 사랑의 감정을 ‘이상’이라는 단어로 축약하여 영탄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가곡 특유의 유

려하면서도 자연스런 서정미, 한숨어린 약음으로 전개되는 우아한 시정과 자연스런 흐름, 거기에 더해진 고상함 등은 참으로 토스티 가곡의 백미라 할 수 있다.

Io ti seguì com'iride di pace Lungo le vie del cielo;
Io ti seguì come un'amica face
De la notte nel velo
E ti sentii ne la luce, ne l'aria Nel profumo dei fiori;
E fu piena la stanza solitaria Di te dei tuoi splendori
In te rapito al suon de la tua voce Lungamente sognai
E de la terra ogni affanno, ogni croce In quel giorno scordai
Torna caro ideal torna un istante A sorridermi ancora
E a me risplenderà nel tuo sembiante
Una novell'aurora Una novell'aurora
Torna caro ideal torna un istante A sorridermi ancora
E a me risplenderà nel tuo sembiante Una novell'aurora
Una novell'aurora
Torna caro ideal torna, torna

하늘 위의 무지개와도 같이 그대를 사모하며
오늘 밤에 황혼이 깃든 이 밤
그대를 동경하네
내 님이여, 그대는 나의 빛 고운 꽃 바람에 그대를 그리며
홀로 있는 쓸쓸한 나의 방에 그대 모습 가득했네
꿈결과 같은 그대의 속삭임이 내 맘에 들리니
지난 날의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한숨마저 갔네
내 사랑이여 돌아오라 웃음의 수레를 사뿐히 타고
당신의 얼굴 장밋빛 그윽한 향기
새벽의 맑은 하늘 거룩한 나의 님이여
내 사랑이여 돌아오라 웃음의 수레를 사뿐히 타고
당신의 얼굴 장밋빛 그윽한 향기
새벽의 맑은 하늘 거룩한 나의 님이여
내 사랑이여 돌아오라

슈트라우스

R. Strauss

마지막 잎새에 의한 여덟 개의 가곡 Op. 10, 제 1곡 '헌정'

8 Gedichte Aus 'Letzte Blätter', Op. 10, TrV 141, No. 1 'Zueignung'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오랜 기간 활약하면서 서구의 후기 낭만주의 시대와 현대음악의 본격적인 도래까지를 모두 지켜본 음악가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새로운 음악사조에 민감했고, 또 혁신적인 음악어법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생애 최후까지 후기 낭만주의 특유의 유려한 세계를 지켜낸 것으로도 유명했다. 이러한 면모는 그의 가곡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화려하고 색채적인 관현악 반주, 로코코풍의 장식미, 싱그럽고 유려한 세계를 묘사하는 특유의 우아한 스타일 등이 슈트라우스 가곡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헌정'은 헤르만 길름의 시를 원작으로 삼은 곡으로, 화사한 꽃처럼 만개하는 인생의 청춘과 봄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샘솟는 찬란한 사랑의 감정을 정열적인 영탄조로 노래한 가곡이다.

Ja, du weisst es, teure Seele,
Dass ich fern von dir mich quäle,
Liebe macht die Herzen krank,
Habe Dank!
Einst hielt ich, der Freiheit Zecher,
Hoch den Amethysten Becher,
Und du segnest den Trank,
Habe Dank!
Und beschworst darin die Bösen,
Bis ich, was ich nie gewesen,
Heilig, heilig,
ans Herz dir sank,
Habe Dank!

아시나요, 소중한 님이시여!
그대 멀어진 나의 이 괴로움을,
사랑으로 병이 든 것을,
고맙소!
예전에 자유의 술꾼.
나는 연수정의 잔을 높이 들었고,
그대는 축배를 들었소
고맙소!
그대는 그 속에서 악령을 몰아내고
난생 처음으로 나는
성스럽고, 성스럽게
그대 가슴에 파묻혔소,
고맙소!

슈트라우스

R. Strauss

네 개의 마지막 노래 Op. 27, 제 3곡 ‘은밀한 초대’

4 Lieder, Op. 27. TrV 170, No.3 ‘Heimliche Aufforderung’

슈트라우스의 가곡은 개인의 내밀한 고백을 토로하는 곡들도 있지만, 마치 단편소설의 한 토막처럼 인생의 찰나적인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포착한 곡들도 있다. 영국의 시인 존 헨리 맥케이의 시에 음악을 붙인 ‘은밀한 초대’는 대단히 독특하면서도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는 가곡이다. 19세기 말 유럽 어느 대저택의 사교모임을 연상케 하는 8/6박자의 춤곡 리듬으로 시작되는 이 곡은 대연회가 펼쳐지는 우아하고 고요한 그날 밤의 어떤 정취를 경탄어린 시선으로 노래하며 시작된다. ‘아름다운 옛 시절’에 대한 회고조의 음악으로, 각별한 우아함을 자랑하는 가곡이다.

Auf, hebe die funkelnde Schale empor zum Mund,
Und trinke beim Freudenmahle dein Herz gesund.
Und wenn du sie hebst, so winke mir heimlich zu,
Dann lächle ich und dann trinke ich still wie du.
Und still gleich mir betrachte um uns das Heer
der trunkenen Zecher - verachte sie nicht zu sehr,
Nein, hebe die blinkende Schale, gegüllet mit Wein,
und lass beim lärmenden Mahle sie glücklich sein.
Doch hast du das Mahlgenossen, den Durst gestillt,
Dann verlasse der lauten Genossen festfreudiges Bild,
Und wandle hinaus in den Garten zum Rosenstrauch,
Dort will ich dich dann erwarten nach altem Brauch,
Und will an die Brust dir sinken, eh' du's gehofft,
und deine küsse trinken, wie ehemals oft,
und flechten in deine Haare der Rose Pracht.
o komm, du wunderbare, Erschente Nacht,
O komme, du wunderbare, Erschente Nacht!

자! 빛나는 술잔을 입가에 높이 들어라
기쁜 잔치에 마음껏 마시자
네가 술잔을 들 때 내게 남몰래 눈짓을 하라
그럼 나도 미소 짓고 너처럼 조용히 마시리라
그리고 가만히 주변의 술취한
무리들을 바라보아라 - 너무 멸시하지는 말고
자, 높이 빛나는 술잔을 들라
포도주 가득찬 이 요란한 잔치를 모두들 즐기게 하라
너 이제 음식 다 들고 목을 축였으면
그 시끄러운 무리들의 즐거운 잔치판을 떠나
거기 정원 밖으로 나와 장미밭 속으로 오라
거기서 나는 너를 오랜 숲속처럼, 너를 기다리리라
그러면 나도 네 가슴에 파묻혀
네가 알기도 전에 네 입술을 마시며
옛날처럼 네 머리카락에 장미와 영화를 엮어 넣으리라
오, 오라! 그대 황홀하고 그러던 그밤이어

슈트라우스

R. Strauss

다섯 개의 노래 Op. 32, 제 1곡 ‘내 안에 사랑을 담아’

5 Lieder, Op. 32. TrV 174, No.1 ‘Ich trage meine Minne’

슈트라우스가 뮌헨에 머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무렵에 쓴 가곡이다. 이 시기 슈트라우스는 대작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작업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스런 가곡들도 다수 썼다. 특히 그의 부인 파울리네는 뛰어난 소프라노 가수여서 그녀에게 헌정하는 로망스 소품들을 곧잘 가곡으로 작곡하곤 했는데, <다섯 개의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곡 ‘내 안에 사랑을 담아’이다. 가사는 슈트라우스의 베를린 시절 친구이기도 한 시인 카를 헨켈의 것이고, 여기에 담백하면서도 고고한 낭만이 깃든 음악을 붙여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가곡을 탄생시켰다.

Ich trage meine
vor Wonne stumm
im Herzen und im Sinne
mit mir herum.

나는 내 사랑을 안고 가리라
기쁨에 말없이
내 마음 내 가슴속
그 어느 곳에도

Ja, daß ich dich gefunden,
 du liebes Kind,
 das freut mich alle Tage,
 die mir beschieden sind.
 Und ob auch der Himmel trübe,
 kohlschwarz die Nacht,
 hell leuchtet meiner Liebe
 goldsonnige Pracht.
 Und lügr auch die Welt in Sünden,
 so tut mir's weh.
 Die arge muß erblinden
 vor deiner Unschuld Schneec.

아, 나는 너를 찾았도다
 사랑스러운 이어,
 나를 항상 즐겁게 만드는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
 비록 하늘이 칙을 하고
 밤은 칙흑 같아도
 내 사랑은 금빛 태양의 영광 속에
 밝게 빛난다
 비록 죄악의 세상에 거짓이 넘치고
 나를 아프게 하여도
 모든 그 사악한 것들로 네 눈처럼
 흰 순결 앞에 소멸하리라

슈트라우스

R. Strauss

네 개의 마지막 노래 Op. 27, 제 4곡 '내일'

4 Lieder, Op. 27. TrV 170, No. 4 'Morgen'

이 곡은 어쩌면 슈트라우스의 가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감동적인 곡일 것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두 도시를 사랑했는데, 바로 독일의 베를린과 오스트리아의 빈이었다. 당시 베를린은 활기찬 신물물의 아방가르드 도시였고, 빈은 여전히 로코코 풍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문화도시였다. 슈트라우스는 고백한다. '그럼에도 나는 빈을 택할 수 밖에 없었노라'고. 빈이 주는 특유의 고풍스런 낭만을 그는 마음 깊이 사랑했던 것이다. 이런 정서는 가곡 '내일(Morgen)'에서 특유의 관조적 태도로 드러난다. 노랫말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음악은 황혼녘의 태양처럼 어둡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이 깊고 은근한 향취야말로 그의 예술가곡이 지닌 드높은 경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

Und Morgen wird die Sonne wieder scheinen,
 Und auf dem Wege, den ich gehen werde
 Wird uns, die Glücklichen, sie wieder einen
 Inmitten dieser sonnenatmenden Erde
 Und zu dem Strand, den weiten, wogenblaugen,
 Werden wir still und langsam neidersteigen
 Stumm werden wir uns in die Augen schauen
 Und auf uns sinkt des Glückes stummes Schweigen

그리고 내일, 태양이 다시금 빛나겠지
 그리고 그 길 위로 가게 되면
 다시금 행운아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지
 태양의 숨결인 이 땅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바닷가에, 그 넓은 곳에, 푸른 물결에
 우리는 잔잔하고 나른하게 내려가겠지
 말없이 우리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겠지
 그리고 말없는 행복은 우리에게 조용히 내려앉겠지

신귀복

Kui-Bok Sin

얼굴

The Face

작사: 심봉석 Bong Seok Sim 1941-

담백하면서도 그리움이 넘치는 선율, 동요처럼 맑으면서도 애뜻한 사랑의 감정을 깊게 그려낸 노래. 신귀복의 '얼굴'이 발표된 지도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이 곡이 지닌 신비로운 매력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생물교사 심봉석 시인이 가사를 쓰고, 음악교사 신귀복이 음악을

붙었다. 우리말 특유의 은은하고 둥근 울림이 주는 매력이 각별하고, 직설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묘사한 것도 인상적이다.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는데, 소년처럼 맑은 감성을 지닌 미성의 테너 존노가 그려낼 그만의 ‘얼굴’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다라 피어나던 하이얀 그 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개 따라 올라갔던 오색빛 하늘 나래
구름 속에 나뭇처럼 날으던 지난 날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곤 하는 얼굴

김효근

Hyo Gun Kym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What Though Life Conspire to Cheat You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썼다고 알려진 시가 이제는 우리말로 안착해 아름다운 노래로 재탄생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이렇게 시작되는 가곡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미련도 후회도 하지 말고, 그저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자는 낙관적인 정서를 읊조리는 듯 담담한 어조로 담아냈다. 작곡가 김효근은 아름다운 노랫말과 친근한 선율이 어우러진 가곡들로 우리 시대의 애창곡들을 수없이 탄생시켜 왔다. 이 노래 또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친근하고 포근한 선율로 모든 이들을 위로해줄 ‘선물 같은 음악’이 될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쪽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차마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쪽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쪽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차마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쪽 올 거야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쪽 올 거야

해설 | 황지원 (오페라평론가)

테너 존노

그가 들려주는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노래들

THE CLASSIC ALBUM

NSQG

NOBLE SIMPLICITY & QUIET GRANDEUR JOHN NOH





테너
존노

John Noh
Tenor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테너 존노는 세계적인 오페라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다.

존노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장학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장학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였으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한편 예일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오페라 가수로서 지난 5년간 20개 이상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고 대표적으로는 메트라이브아트 (MetLiveArt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하여 오페라 유망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존노는 카네기홀 아이작 스티븐 오디토리움, 뉴욕 머긴홀,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 텔리 홀, 브루클린 내셔널 소더스트(National Sawdust) 등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과 연주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와 함께 <몬테베르디의책>을 노래했다.

오라토리오 가수로서 미국 최초의 성당인 <바실리카 성당> 225주년 음악회에서 모차르트 C단조 <대미사> 솔리스트로 시작해, 로시니 <작은 장엄 미사>, 헨델 <메시아>, 바흐 <마태 수난곡> <마그니피카트>,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등 오라토리오 가수로서 커리어를 쌓아갔다. 대표적으로 1906년부터 있었던 뉴욕의 역사적인 합창단인 뉴욕 세실리아 합창단과 카네기홀에서 모차르트 레퀴엠 테너 솔리스트로 “중창과 솔로 파트에서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채널인 메디치TV(Medici.tv)와 줄리어드 음악원이 합작한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감독인 야닉 네제 세겐과 지휘자 엠마누엘 비욘에게서 마스터 클래스를 받았다. 그는 또한 파비오 루이지, 앨런 길버트, 마릴린 혼, 닐 슈코프, 앨런 헬드, 패트리샤 라세트 등 거장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다. 카네기홀에서 주관하는 가곡 전문 프로그램인 ‘The Song Continues’ 시리즈에 출연하였다.

국내활동으로는 KBS 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디토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예술의전당 ‘젊은 예술인 시리즈’ 등 다수의 협연 및 작업을 하였다. 존노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장르의 음악을 훌륭히 소화해 내며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지휘 이병욱

Christopher Lee
Conductor

2018년 10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이병욱은 국내외 교향악단의 지휘는 물론,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발레,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 지휘자의 꿈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랐으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한 후, 전문 연주자 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귀국 후 TIMF 앙상블 수석 지휘자와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독일 뉘른베르크 심포니, 체코 Bohuslav Martinu 필하모니 등의 객원 지휘자를 역임하였으며, 2006년에는 잘츠부르크 시에서 주최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의 오프닝 공연을 지휘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우수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를 역임하였고 통영 국제 음악제, 베니스 비엔날레, 벨기에 클라라 페스티벌, 홍콩 무지카마라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음악 축제를 통해 오케스트라 음악의 앞선 리더로서 연주자와 독주자 등의 신뢰받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하였다.

탁월한 음악적 소통에 능한 그는 교향곡 지휘는 물론 다양한 제작 공연 작품의 음악감독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2007년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마술피리>의 음악감독으로 대중에게 오페라 음악을 선보인 그는 <살로메>,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등의 대한민국 대표 오페라 작품은 물론 한국 초연 작품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이소영 연출, 2007년)>, <어린왕자(변정주 연출, 2015년)> 등의 작품에도 지휘자이자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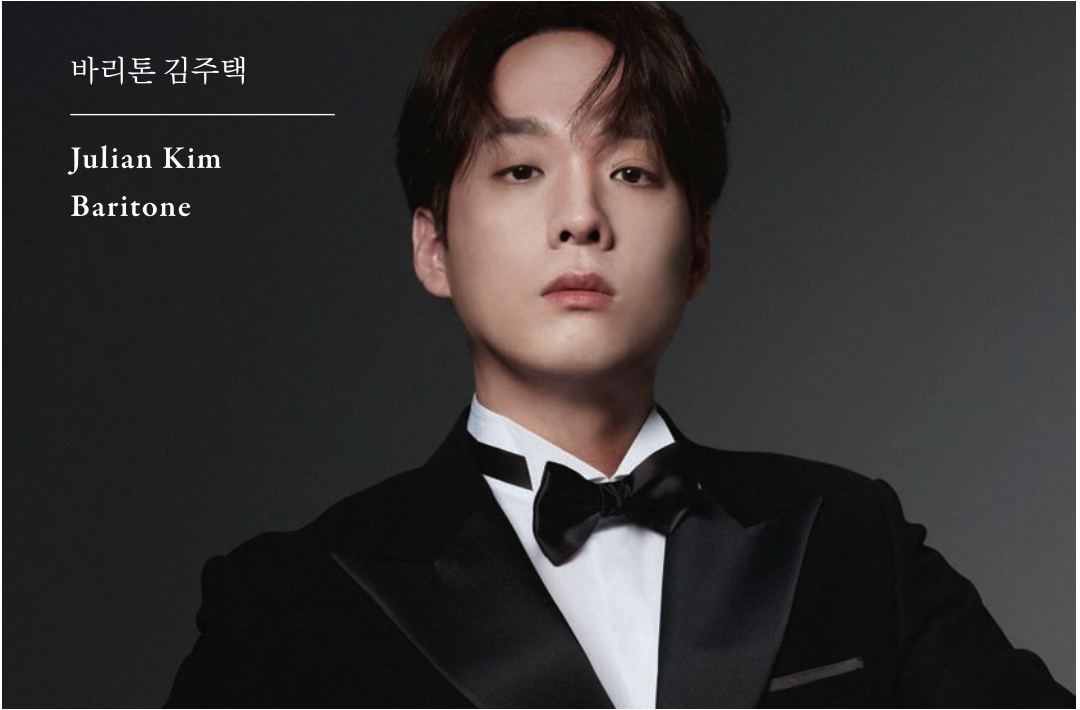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 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창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이병욱(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즈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및 유키 구라모토 내한 공연의 파트너, 롯데콘서트홀 키즈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을 받았던 디토 카니발 및 아마데우스 라이브,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콘서트와 같은 필름콘서트는 물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등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 <모가디슈>의 OST 녹음에 참여하였다.

바리톤 김주택

Julian Kim
Baritone



바리톤 김주택은 선화예고 재학 중, 성악의 본고장 이탈리아로 유학길에 올라 2010년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 Musica vocale da camera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 점수로 졸업하였다.

프랑스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1위, 이탈리아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 2위,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 2위, 아라갈 국제성악콩쿠르 최연소 특별상, 서울국제음악콩쿠르 2위,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신인예술가상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한국을 넘어 유럽 클래식계에 떠오르는 차세대 바리톤으로 입지를 굳혔다. 2009년 이탈리아 예지 페르골레지 극장에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 역으로 데뷔한 김주택은 이후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라보엠’, ‘청교도’, ‘돈카를로’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역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파르마 레지오 극장, 피렌체 시립극장, 예지 페리골레지 극장,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비제보나 카그노니 극장, 크레모나 폰키엘라 극장, 볼로냐 시립극장, 토리노 레지오 극장, 모데나 시립극장,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로마 카라칼라 욕장, 페루 리마국립대극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오페라센터, 중국 베이징 중국국가대극원, 상하이 오리엔탈아트센터, 일본 도쿄 분카무라, 오사카 Festival Hall 등 다수의 극장에서 활약하며 월드클래스 오페라 가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동양의 카푸칠리’,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 ‘한류 바리톤’ 등 수많은 수식으로 클래식계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김주택은 2017년 JTBC 팬텀싱어2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였다. 출연만으로도 많은 화제를 낳은 김주택은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와 섬세한 테크닉으로 순식간에 대중들을 사로잡으며 크로스오버 그룹 ‘미라클라스’를 결성, 또 하나의 음악적 색깔을 완성시켰다.

김주택은 2018년 미라클라스 데뷔 앨범 ‘Romantica(로만티카)’를 발매하며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2019년 데뷔 10년 만에 발매한 첫 솔로 앨범이자 이탈리아 가곡으로 구성된 ‘Italiana(이탈리아나)’를 발매,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형제 피아니스트가 선보이는 다시없을 Mozart의 향연

임동민 임동혁

Meets

디토 오케스트라

M O Z A R T
DONG MIN LIM DONG HYEK LIM & DITTO ORCHESTRA

모차르트 오페라 <가짜 바보> 서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2번 (협연:임동민)

Intermission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협연:임동혁)

피아노 임동민 | 피아노 임동혁 | 지휘 이병욱 | 디토 오케스트라

2021.10.6 WED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목소리로 쓴 러브레터

‘팬텀싱어 3’의 테너 존 노, 음반과 리사이틀로 만난다

INTERVIEW

인터뷰



지난해 JTBC ‘팬텀싱어 3’에서 크로스오버 보컬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존 노(1991~). 그는 피바디 음악원, 줄리아드 음악원을 졸업한 후 카네기홀에 솔리스트로 데뷔하며 오라토리오 가수로 커리어를 쌓아왔다. 존 노는 방송에서 매 경연마다 대중가요·월드뮤직·힙합 등 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대중을 열광시켰다. 방송을 통해 결성된 보컬 그룹 라비던스로 활동이 한창이던 여름의 끝자락, 수화기 너머로 울린 그의 목소리는 청명하면서도 따스했다.

9월 솔로 데뷔 앨범(워너뮤직코리아)과 첫 단독 리사이틀(9.18,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관객과 만납니다. 곡목을 보니 바로크 오페라 아리아부터 현대 가곡까지 시대와 장르를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는데요.

‘테너 존 노’로서의 정체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팬텀싱어 3’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고전시대 작품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진 장점, ‘다양성’을 클래식 음악 안에서 펼쳐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세계 의미 있는 노래들을 시대별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이번 레퍼토리들이 마치 ‘사랑 단편선’으로 다가왔어요. 그중에서도 존 노에게 특별한 노래들이 있겠죠?

맞아요. 비제 ‘카르멘’의 ‘꽃노래’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죠.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가 숭고한 사랑이라면, 김효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위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마음에 깊게 와닿은 곡이기도 해요. 바리톤 김주택의 공연을 통해 처음 제대로 들었던 날 참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저 역시 이 노래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죠. 헨델 오라토리오 ‘입다’ 중 ‘천사여 그 아이를 하늘에 있게 하라’는 외동딸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거둬야 하는 아버지의 노래예요. 헨델이 쓴 바로크 음악 특유의 복잡한 감정을 잘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의 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네모리노의 노래이고요.

이번 앨범 타이틀로 NSQG(Noble Simplicity & Quiet Grandeur)를 내세웠습니다. ‘고귀하며 소박하고, 고요하며 위엄 있는’라는 뜻으로, 18세기의 미술사가 빙켈만이 내세운 예술 사조인데요. 이러한 미학이 21세기의 젊은 테너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군 전역 후에 피바디 음악원에서 고전시대 예술 미학 수업에서 처음 접한 이후 제 인생의 모토로 줄곧 쓰고 있어요. 유학 생활 동안 누구나 경쟁, 생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이 글귀가 절 붙잡아줬어요. 내공을 쌓아 깊이 있는 삶을 살자고 생각하며 버텼죠. 환경은 달라졌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며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고 있어요.

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까지 여러 장르를 오가며 변모하는 현재를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이 늘 경계와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한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오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땐 또래 사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고등학생 무렵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주어진 환경에 늘 최선을 다했지만, 저도 자신을 정의하기가 힘들었어요. 음악 면에서 저를 봐도 전통적인 성악가 코스와는 거리가 있어요. 예술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신학을 배우려다가 음대에 진학했으니까요. 어릴 적에는 힙합이나 대중가요를 많이 들었고, 노래방 다니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 시절의 대중문화 감각이 몸에 남아서 지금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팬텀싱어’에서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선택할지 고민하며 관객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숙제였는데, 결국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곧 소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각 상황에 맞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 인터뷰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 노가 생각하는 대중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이 곧 대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팬텀싱어’ 이후 클래식 음악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제 음악을 듣는 팬들 대부분은 클래식 음악이 낯선 경우가 많거든요. 공연장에 오기 전 작품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 노래에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감한다는 이야기도 들곤 해요. 거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이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 이후 관심이 깊어지면 모두 자연스럽게 대가들의 음악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는 이들의 고민 중 하나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vs.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학교 다닐 때 ‘오페라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결국 그 배역을 잘 하는 사람을 뽑게 되니까요. 저 역시 모차르트, 현대 음악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구요. 그러다 지금의 자리로 왔는데 점점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건다 보면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웃음)

지금의 자리로 존 노를 이끈 것은 무엇인가요. 재능, 노력, 기회의 비중을 따져본다면?

노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위기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거나, 포기하기보다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군 복역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팬텀싱어’를 위해 미국에서 오페라 공연을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야 할 때도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제게 큰 동력이 되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음악에는 사랑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노래를 통해 전하고 싶어요. 그 사랑은 공감에서 시작하는데 누군가를 향해 서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소리나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칭찬 이상으로 팬들에게 제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희망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큰 감동을 받아요.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쁨도 슬픔도 노래로 공감하는 아티스트로 남고 싶어요.

글 | 김선영 (콘텐츠 프로듀서, 공연 칼럼니스트)
<월간객석> 2021년 9월호 기사 전제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완벽하고 짜릿한 사운드



DUO
문태국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베트벤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주제에 의한 7개 변주곡, WoO 46

멘델스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 Op.58 |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19

2021.11.30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테너 존노 리사이틀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유료 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